

광주시장·전남지사 송년·신년 기자회견

“민주-安신당 지방선거전 통합해야”

강운태 시장

‘인권·복지’ 시민주권시대 실현

문화전당·KTX 지역발전 견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26일 2014년 새해 광주시정의 화두를 시민주권시대 실현의 해로 정하고, 인권과 복지가 삶 속에 뿌리내리는 행복한 공동체 실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안철수 신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정치 세력이 지향하는 가치와 민주당의 지향점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지방선거 이전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세력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장 브리핑룸에서 열린 송년·신년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신당 세력이 주력하는 곳은 민주당의 텃밭이자 토대인 호남과 수도권인데, 호남에선 양측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수도권에선 연대하자는 말도 들린다. 이는 새 정치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또 “현 한국정치는 여야 모두 제 역할을 못해 대부분 (국민이) 낙제점을 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새 정치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히 여당이 국회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신당이 제3의 지대에서 서겠다는 것은 아권의 분열로 이어져 더욱 어려운 상



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2014년 시정계획에 대해서는 “정책 입안부터 실행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주권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2014년을 ‘세계속으로 웅비하는 해’로 정하고 “오는 2015년 개관·개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체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특히 내년 말 완공되는 호남고속철도(KTX)가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목표로 “2014년 수출목표액을 올해보다 33억 달러(20.6%) 증가한 193억달러로 정하고, 기업 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올해의 광주시장 성과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와 5·18 민주화운동 평화·왜곡에 대한 적극 대처, 국비 3조원 시대 개막, U대회 선수촌 100% 분양, 제2순환도로 1구간 1심 승소 등을 거론했다.

강 시장은 또 “한국민주주의의 전당 광주유치와 무등산 국립공원 공식 지정, 제12차 세계한상대회 성공 개최 등으로 광주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특히 건강강국이 3년 연속 전국 1위에 오른 것도 도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강 시장은 다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아쉬움도 남는다”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극복·세력의 평화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문서 위조 논란 등을 올해 아쉬운 시점으로 꼽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安 지지는 민주당 실망 반영한 것”

박준영 지사

일자리 창출·친환경농업 완성

생물·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6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남의 인구 유출을 막고 친환경 농업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의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또 안풍(安風)에 대해서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도민의 지지가 높게 나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의 실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하고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도민에게 (재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며 (민주당에 대한) 냉소주의도 겹쳐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에 대해 박 지사는 “원칙적으로 통합은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통합하는 순간, 안철수 신당은 민주당 기득권에 합류될 우려가 크게 통합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현재 민주당은 좌쪽으로 너무 갔고 안철수 신당은 옛 민주당 수준이다. 서로가 다른 만큼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2014년 도정에 대해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생물·소재·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미래에 빛을 볼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키워나가고, 농업의 기업화·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복마을과 전원마을, 은퇴도시를 확대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도민 모두가 희망을 노래하는 훈훈한 공동체 전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10년 전, 한 해 3만6000여명씩 인구가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3000명선으로 줄었고 오는 2015년에는 인구 감소가 멈추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쳐 계획이다.

또 동물대체시험인증, 해양용·복합소재 산업화, 해양레저단지 전용 산단 조성 등을 통해 신성장 산업도 육성한다.

친환경 농업의 완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된다.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전문 관측단(110명)을 운영하고 품목별 유통회사(4개), 산지유통시설(311개소) 등도 조성된다.

진도 해역 400ha에 150억원을 들여 양식업을 만들고, 김종자연구센터 등 수산물 생산을 위한 연구 인프라도 확보하게 된다.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31만여명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등 내년에는 전남도의 복지 정책도 확대된다.

SOC분야에서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와 103지구에서 연륙·연도교 사업, 흑산도 소형공항도 건설도 추진된다.

박준영 지사는 올해 도정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425개의 기업을 유치해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수도권 학교급식의 50% 이상을 전남 친환경 농산물로 납품하는 등 친환경 농업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용섭·박혜자 의원 발의... 공무원·기업 일정비율 채용 등 지원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대한 내용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지방대학 발전 지원 특별법안’과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방대학 및 지

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인재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 채용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법령의 제·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 경쟁력이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 고등교육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의원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발전의 공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park@

광주문화재단 노성대 대표 연임 포기

연임 여부를 놓고 지역 문화계의 반발(광주일보 12월20·23일자 2면)을 사뭇한 노성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연임을 포기하고 결국 사퇴했다.

광주시는 26일 “노성대 대표가 재단이사 회 전체이사의 연임 추천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본회의 의사를 존중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이에 따라 27일 3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노 대표는 지난 19일 광주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연임 추천이 결정됐으나, 그동안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놓고 지역 문화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 대표는 “설립초기 3년동안 재단의 초기 안정화에 전력을 온 만큼 재단 2기 대표

는 좀 더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후진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한다”는 뜻을 광주시장에 밝혔다. 노 대표는 내년 말까지가 임기인 광주 국제행사공 시민협의회 회장직에 전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광주문화재단은 후임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이 직무 대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빠른 시일내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재단의 조직, 기능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후임 대표 인선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전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여수 등 1만214 그루 감염

여수와 광양 등 전남 동부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전남도는 “도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돼 고사한 피해목은 여수 5640그루 등 모두 1만214그루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순천은 2542그루, 광양은 2063그루이며 주로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소나무 재선충병 발견 첫해에 10만937그루가 고사한 이후 2011년 1095그루, 지난해 1030그루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올해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실험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중앙지점 | 653-4474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 361-3515 양 동 지 점: 362-6164
전 화 각화지점: 268-6163 중앙금호지점: 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초로 246번길 3

이탈리안 뷔페 아이엘리시아

80여가지의 다양한 이탈리안 메뉴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맞게 드실 수 있는 프리미엄 이탈리안 뷔페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룸완비)

구분	영업시간	성인(18세이상) 1인	취학아(18세미만) 1인	마취학아(18세미만) 1인
평일	11:30~22:00	15,500원	9,000원	6,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19,500원	12,000원	8,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요념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볼골레
Yongole ₩10,800

베리칸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style crispy chicken steak ₩10,800

블루베리 덴버포크 스테이크
Blueberry Denver pork steak ₩10,800

크랜베리 디아블로 폴로 스테이크
Cranberry diablo polo steak ₩10,8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